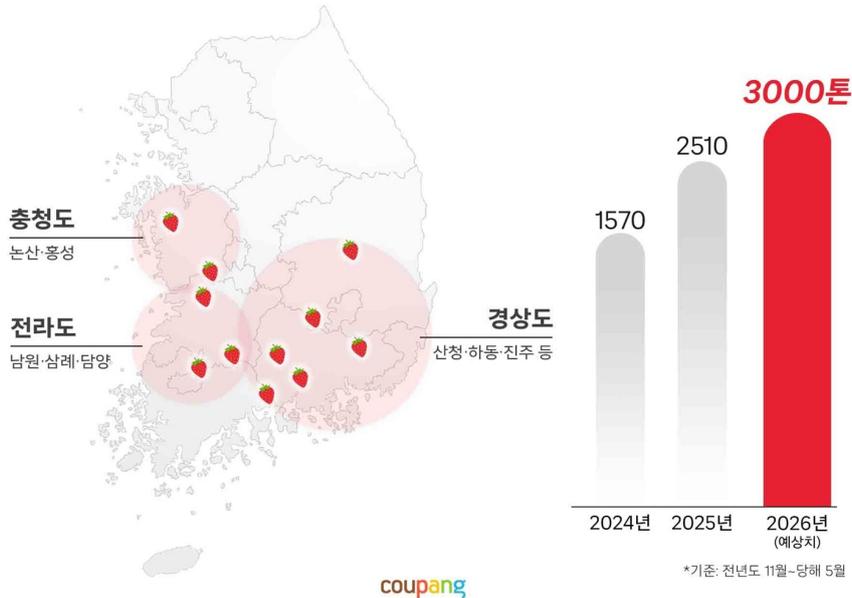


[보도자료] 쿠팡,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딸기 3000톤 매입 판로 끊긴 지방 농가 활성화

2026. 3. 15.

쿠팡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딸기 매입 확대



쿠팡,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딸기 3000톤 매입 판로 끊긴 지방 농가 활성화

- 경상도·전라도·충청도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3000톤 매입 계획
- 납품처 거래 중단으로 판로 끊겼던 의성 청년 농가, 산불과 폭우로 피해입은 산청 농부 등 위기 극복
- “경영 어려움 처한 딸기농가 집중 발굴 및 지원”

2026. 03. 15. 서울 - 쿠팡이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전국 주요 딸기 농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000톤 규모의 딸기 매입을 추진한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이상기후 현상, 판로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가들의 딸기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농가 소득 중대를 지원하며, 전국에 새벽배송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손잡고 인구감소지역 딸기 산지 크게 늘려

쿠팡은 딸기 시즌인 오는 5월까지 약 3000톤의 딸기를 주요 산지에서 매입할 전망으로, 지난 11월부터 매입을 시작했다. 직전 딸기철(2024년 11월~2025년 5월)의 매입 규모인 2510여톤과 비교해 20% 늘어난 수치다. 쿠팡의 2023~2024년 시즌 딸기 매입량이 1570톤인 점을 감안하면 2년 만에 약 2배 늘어난 결과다. 쿠팡은 지난 11월부터 올 2월까지 딸기 매입 규모가 1500여톤에 이른 상황이다.

쿠팡이 딸기 매입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새벽배송 산지직송을 이용하는 전국 고객이 늘어나면서, 딸기 농가 활성화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농가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경북 의성의 '진한딸기 공선회' 청년 농부들이 상품과 함께 사진 촬영하고 있다.

2년 전 쿠팡의 딸기 매입 산지는 충남 논산·경남 진주 등 5곳이었다. 올해 매입지는 총 11개 지역으로 경상도(산청·하동·진주·밀양·고령·의성), 전라도(남원·삼례·담양), 충청도(논산·홍성) 등이다. 이 가운데 8곳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쿠팡은 지난 4월 경북 고령군, 11월 충남 논산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딸기의 온라인 판로 확대에 나섰다.

올 2월까지 지역별 매입 규모는 경북 산청이 90톤에서 150톤으로 60% 이상 늘었고, 충남 논산도 260톤에서 440톤으로 약 70% 확대했다. 신규 산지인 경북 의성과 전남 담양에서는 30톤 이상을 매입했다.

◇납품처 거래 중단으로 판로 위기..쿠팡 거래로 극복

주요 지역 딸기 농가들은 가을철 일조량 부족, 수해 등의 이상기후, 산불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경기 침체로 기존 납품처가 파산하면서 여러 딸기 농가들이 판로가 중단되는 위기를 겪었다.

청년 농부들로 구성된 경북 의성 '진한딸기 공선회'는 지난해 납품처 파산으로 해체 위기에 놓였다가 쿠팡을 통해 기사화생했다고 말했다. 배준형 진한딸기 공선회 회장은 "딸기 스마트팜에 수억 원씩 투자한 22개 농가 소득이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쿠팡을 통해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 의성 딸기 농가들은 전년 딸기 시즌 대비 최대 20% 이상의 매출 상승을 올해 기대한다.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해 300동이 넘는 농가의 피해를 입은 경북 산청과도 손잡았다. 산청에서 20년간 금실 딸기를 재배해온 하미회 농부는 "지난해 봄 산불과 여름 폭우로 농가들이 어려움이 컸는데 쿠팡의 지원 덕분에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북 남원 딸기 농가와 협력하는 농협경제지주 담당자는 "주요 납품처였던 대형 유통업체의 위기 상황을 쿠팡의 정기 직매입을 통해 극복했다"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농가들은 유통구조가 복잡한 도매 공판장 거래와 달리 쿠팡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으며, 빠른 새벽배송으로 딸기 신선도를 지킬 수 있는 만큼 농가 수익 증대와 지역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쿠팡은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판로 확대에 어려움에 처한 딸기 농가들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쿠팡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고객에게는 최상의 신선도를 보장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